

불황에 수능 응원 선물도 '실속형'

7천원대 초콜릿 전년보다 매출 50% 올라 유통업계, 수험포 소지생에 경품·할인행사

경기불황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광주지역은 올해 수능 응원선물로 초콜릿이 큰 인기를 얻었다. 지난해는 수능선물로 보온도시락이 가장 많이 팔렸지만 올해는 저렴하면서도 실속있는 선물을 찾는 경향이 뚜렷했다.

수능 응원선물은 저렴한 초콜릿 인기=광주지역 이마트 5개점(광산·광주·동광주·봉선·상무점)이 지난달 25일부터 4일까지 매출을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에서는 초콜릿이 지난해보다 50%나 잘 팔리면서 올해 수능 선물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큰 인기를 끌었던 수능선물은 2만원대 보온도시락이었지만 올해는 7000원대 초콜릿 세트가 대세였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고가의 건강식품이나 '시험을 잘 보라'는 뜻의 언어유희형 아이디어 상품(휴지, 거울 등)보다는 저렴하면서도 실속 있는 선물을 찾는 경향이 지난해보다 더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초콜릿은 카페인이 함유돼 있는데다 주성분인 카카오에 플라보놀이 풍부해 스트레스 해소 등 수험생 건디

선 조절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저렴한 가격 때문에 실속선물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이마트측 관계자는 설명했다.

보온도시락(2.3%), 보온병(0.5%), 담요(0.7%) 등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기 수능선물로 꼽히긴 했지만 지난해에 비해 매출이 크게 늘지는 않았다.

지난해에는 보온도시락이 가장 많이 팔렸으며 담요, 보온병, 떡, 포크 등이 인기 수능선물에 이름을 올렸다.

수험생 받고 싶은 선물, 태블릿 PC·명품지갑=수능을 치른 고3 수험생은 노트북이나 명품지갑을 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신세계몰에서 고3 수험생 550명과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 320명을 대상으로 가장 받고 싶은 선물과 가장 주고 싶은 선물에 대해 설문한 결과 남학생은 노트북·태블릿 PC(31%)와 현금(25%)를, 여학생은 명품지갑·가방(29%)과 피부관리용품·화장품(25%)을 꼽았다.



수능을 하루 앞둔 7일 오후 (주)광주신세계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한 고객이 수능선물을 살펴보고 있다. <주)광주신세계 제공>

반면 부모들은 정장·구두(34%)에 이어 책(27%), 가방(14%), 노트북(12%) 등을 선물하고 싶다고 답했다.

지역 유통업계 수능 마케팅 강화=광주신세계는 9~11일까지 수험표를 소지한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를 열고 추첨을 통해 하얏트 리젠시 제주호텔 숙박권(1명), 피부관리 이용권(2명), CGV영화권·패밀리 레스토랑 식사권(10명) 등을 증정한다.

또 2층 화장품 매장에서는 '광주신

세계 수험생 쿠폰'과 '수험표'를 제시한 고객에게 화장품 샘플을 증정하며, 의류매장에서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최대 3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11일까지 수험표를 지참한 고객을 대상으로 영캐 주얼 의류를 최대 20%까지 할인해 주는 특별 세일을 진행하며 문화센터에서는 다이어트 댄스, 테라피 요가, 대학 새대기를 위한 기초화장법, 자 세교정을 위한 발레교실 등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강좌를 대거 편성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고맙다, 휴대전화·반도체

10월 145억5000만달러 실적...IT 수출 역대 최대

휴대전화와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면서 지난달 IT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7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10월 IT 산업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수출액은 145억5000만달러로, 기존 최대 실적인 2010년 10월의 140억9800만달러를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37억2000만달러와 비교해서는 6.1%, 지난달의 140억7000만달러와 견줘서는 3.4% 늘어난 수치다.

이 같은 수출 실적을 주도한 것은

휴대전화와 반도체 산업이었다. 휴대전화 수출은 3개월 연속 성장해 지난달 22억6000만달러를, 반도체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46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휴대전화 수출이 늘어난 것은 제품의 해외 생산 비중이 지난해보다 3% 포인트가량 줄어든 78%였고 전략 스마트폰의 유럽 수출이 호조를 보인데 따른 것이다.

IT수입도 작년과 견줘 10.9% 늘어난 74억5000만달러를 기록하면서 IT 무역수지는 지난해보다 다소 흑자폭

이 줄어든 71억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IT 흑자는 우리나라 전체 수지 흑자(38억달러)의 약 1.9배에 달하는 수치로, IT무역수지가 무역수지 흑자를 견인한 모양새를 보였다.

지경부는 "세계적인 PC 수요 감소로 메모리반도체 수출이 정체·감소하고 있지만 중국의 에너지 절약제품 보조금 정책과 미국의 TV 수요 회복세, 연말 특수 등에 힘입어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이 IT 수출 호조를 견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유럽의 재정위기가 지속되고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세는 IT 수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공장 매각...동국제강 거쳐 기아로

광주권 지역경제 운동사 <31>

아시아자동차공장 유치운동 ⑦

무리한 투자·빚 악순환...지주·부품업체 '좌절'

▲매각설, 우리가 현실로

1966년 12월 16일 착공된 아시아자동차 공장은 착공 3년만인 1969년 10월 본 공장이 준공되었으나 지역민과 지주들의 산업화에 대한 열망과 회생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투자와 악성 사채가 누적되는 바람에 차츰 동력을 잃고 말았다. 이 무렵부터 시중에 아시아자동차 매각설이 나돌면서 지주들 사이에 악화된 자녀들의 취업이 차질을 빚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기우는 현실로 다가왔다. 1969년 말 아시아자동차는 끝내 동국제강으로 넘어가 고만 것이다.

▲인력·부품조달 서울 중심으로

공장이 가동되자 본사는 서울에 주저앉고 관리사원은 물론 기술자도 외지 사람들이 들어왔다. 단순 근로자도 기술자들이 미리 짜고 들어오는 바람에 바늘 구멍이었다. 무엇보다 지역경제와 소득증대에 직결되는 자동차부품 조달이 서울 중심으로 이뤄졌다. 아시아자동차 공장도 동시에 완공된 광

주지방공업단지는 광주권 중소기업의 입주를 위한 것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품을 납품하는 아시아자동차의 계열 중소기업단지로서 자동차 공장의 소득을 지역 소득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것이 설립목적이었다. 따라서 서울 위주의 부품 조달은 광주공단 계열 기업들에게 타격을 안겨주었다.

▲피아트·코로나·코티나와 3각 구도

아시아자동차를 인수한 동국제강이 자동차 생산을 개시한 것은 1970년 3월부터다.

아시아자동차의 첫 모델인 피아트 승용차는 내구성·경제성, 그리고 중상류층 선호의 보수적인 외형으로 두각을 나타내면서 신진인 코로나, 현대의 코티나와 더불어 국내 자동차 시장의 강력한 3각 경쟁구도를 이루게 되었다. 비록 생산연도는 현대의 포드 20M 보다 1년 뒤였지만 설립연도로 보면 아시아자동차가 1961년 8월이니 서울 1967년 12월에 설립된 현대자동차 보다 6년이 앞선다. 1960년대 이후

시발, 신진, 새나라 등 많은 자동차업체들이 명멸했으나 오늘날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것은 현대자동차와 아시아를 이어 받은 기아자동차 뿐이다. 따라서 오늘날 세계 5대 자동차 강국이 된 우리나라 자동차공업을 더듬어보면 그 원뿌리 중의 하나가 아시아자동차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연이은 지역민들의 좌절감

부채를 떠안고 인수한 동국제강은 인수 초기 피아트 승용차의 호조로 한때 궤도에 오르는 듯 했으나 부채와 신규 투자의 부진으로 경영상의 문제점이 노출되기 시작했다. 프랑스 차관의 기본 채무 말고도 매년 10억원씩 부채가 누적되었고 부실경영과 노사분쟁이 반복되면서 결국 아시아자동차는 1976년 9월 3일 160억원의 부채를 안은 채 3000리자전기의 모기업인 기아산업으로 넘어갔다.

자녀 취업이라는 회사 측 약속만 믿고 땅을 헐값으로 내놓은 지주들이나 부품 기대를 안고 모여들었던 부품 업체들, 그리고 거대한 유치운동을 선도한 상공인과 지역민들은 호남비료에 이어 또다시 좌절감을 감출 수 없었다.



위중 (연문인)

光銀, 장성서 대봉감 수확 봉사활동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7일 오전 장성군 북하면 중평마을에서 송기진 은행장과 김양수 장성군수 및 광주은행 대학생 홍보대사 50여명이 참석한 '전라도 삶의 현장-대봉감 수확' 봉사활동을 가졌다. <광주은행 제공>

3분기 신규 부실채권 감소

5조8000억원...2분기보다 1조1000억원 줄어

금융감독원은 올해 3분기 은행에서 5조8000억원의 부실채권이 생겼다고 7일 밝혔다. 2분기 발생액보다 1조1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기업여신 부실채권이 5조4000억원에서 4조4000억원으로, 가계여신 부실채권이 1조3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줄었다. 신용카드 부실채권은 2000억원이다.

은행들은 3분기에 4조8000억원의 부실채권을 매각이나 상각 등의 방식으로 털어내 2분기보다 정리 실적이 2조2000억원 감소했다.

부실채권 발생액이 줄었지만 부실채권 정리 실적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든 탓에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2분

기 말보다 0.07%포인트 오른 1.56%를 기록했다.

기업여신의 부실채권 비율이 1.84%에서 1.93%로, 가계여신의 부실채권 비율이 0.76%에서 0.80%로 상승했다. 은행권 부실채권 잔액은 21조9000억원으로 2분기 말보다 1조원 늘었다. 이 가운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은 2조9000억원이다.

금감원은 기업여신의 부실채권 비율은 관측은 수준이지만 집단대출 분쟁의 장기화로 가계여신 부실채권 비율이 계속 올랐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세상이 기다리던 행복한 Party가 시작된다

2012 이문세 붉은노을목포

11.9(금)~10(토)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대극장

문의 1588-0766 예매 티켓마루, 인터파크 주최 광주일보 주관 공연마루 후원 목포시 제작 (주)무봉 협찬 LH